

문화탐방

9월, 제주에 탐라의 바람이 분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장 조 선 희

세계가 찾는 제주의 대표 브랜드 메가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2012탐라대전> 추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주 정체성의 뿌리 탐라의 역사와 문화를 상상력을 통해 부활, 120만 내외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를 널리 알리자는 것이 <2012탐라대전>의 취지이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탐나는 축제’ <2012탐라대전>, 9월 13~19일 이호해변서 열려

1. 탐라정신의 부활을 축제에 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평화의섬, 국제자유도시 보물섬 제주에 부족한 ‘2%’로 지적되던 대표 축제가 올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탐라, 부활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는 <2012탐라대전>이 그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0년 역사의 탐라문화제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 확대시켜 세계가 찾는 제주의 대표 브랜드 메가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2012탐라대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은석, 이하 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제주 정체성의 뿌리 탐라의 역사와 문화를 상상력을 통해 부활, 120만 내외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를 널리 알리자는



것이 <2012탐라대전>의 취지이다. 2천여 년 전 건국된 이래 1천 년 이상 역사를 이어갔던 고대 해상왕국 탐라의 개방, 도전, 개척, 교류정신을 21세기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외 축제, 기획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총감독(2009~2011)과 광주세계김치축제집행위원장(2009~2011)을 지낸 조정국감독(55)을 총감독에, 지역협력프로그램머로

김해곤 섬아트연구소장(2003년~현재)을 위촉했다.

2. 제주에서 처음 만나는 스토리텔링 축제

과거 동북아 교역로의 허브였던 탐라의 ‘오픈 마인드’가 축제적 상상력으로 거듭나게 될 <2012탐라대전>의 슬로건은 ‘탐라의 부활, 신들의 초대’. ▲기존의 탐라문화제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예술축제와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를 되살리는 신화역사축제, ▲고대 탐라해상왕국의 위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교류협력축제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012탐라대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주의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메인스토리가 축제의 전반을 관통하는 ‘스토리텔링’형 축제라는 것. 축제 공간 구성이나 개막식에 앞선 주제퍼레이드와 축제기간 동안 야간에 선보이게 될 주제공연 등이 모두 메인스토리에 의해 진행된다. ‘설문대할망 해물죽’, ‘조왕할망 뭍국’, ‘자청비 고소리술’, ‘문도령 돛베고기’, ‘도체비 흘린 오메기술’ 등 스토리텔링에 따른 전통음식들로 『탐라신화음식관』이 꾸며진다. 축제 자원봉사자들의 애칭인 ‘탐라 오백장군’도 메인스토리에 따른 설정의 하나이다. 도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단 한 쌍의 커플을 위한 결혼식 이벤트 『탐라, 천년의 사랑』도 역시 사랑하는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남장도 서슴지 않고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구해온 적극적인 자청비가 마침내 사랑을 이루고 인간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농경신이 되었다는 설화가 그 모

티브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감동적인 사연을 지닌 한 쌍을 ‘자청비와 문도령’으로 선정, 추진위가 축제장 내 ‘상상과 예술로 태어난 덕판배’가 놓인 탐라정원에서 실제 결혼식을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도민과 관광객 등 축제 관람객들에게는 ‘자청비 고소리술’과 ‘문도령 돛베고기’가 피로연 음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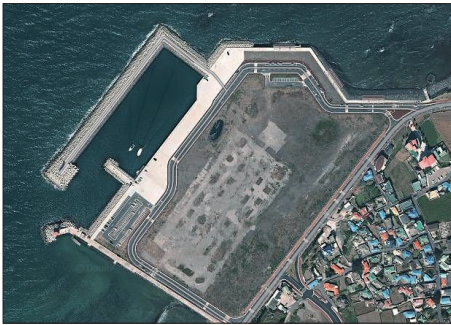
3. ‘바람마차’ 타고 흐르는 ‘환타스틱 탐라’의 문화적 유전자

〈2012탐라대전〉에서 선보이게 될 3대 대표 프로그램(킬러 콘텐츠)은 지금까지 제주에서 열린 여느 축제와도 다른 메가축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주제공연 『탐라환타지』. 천지개벽에서부터 상생의 미래까지 담기게 될 『탐라환타지』는 워터커튼, 불기둥, 불꽃의상, 와이어(무용수)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감성적 축제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환상적 무대로 꾸며진다. 주제 퍼레이드 『바람마차퍼레이드』 역시 총 4개의 장으로 연결된 도민참여 스토리텔링형 퍼레이드. 도내 읍, 면, 동 마을 가운데 독특한 설화와 역사, 특산물 등을 지닌 10여 개 마을을 미리 선정, 지역 미술인 및 연극인이 멘토로 참여하여 공동작업함으로써 도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를 구현하게 된다. 『탐라DNA』를 주제로 한 전시관은 ‘상상과 예술로 태어난 덕판배’라는 이름의 아트 컨테이너에 꾸며진다. 모두 4개의 공간에서 탐라의 대표적인 자연, 인문학적 상징물들이 디지털 영상, 파노라마, 증강현실체험 등을 통해 탐라의 문화적 DNA로 연출된다. ‘상상과 예술로 태어난 덕판배’가 놓이게 될 『탐라정원』은 신화 속의 ‘서천꽃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상의 예술정원. 초중고학생 등 도민과 관광객, WCC총회 참가자들로부터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미리 접수받아 젖지 않는 리본으로 접은 1만 8천 송이 꽃이 꽃힐 탐라정원은 ‘상상과 예술로 태어난 덕판배’와 함께 축제장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4. 제주에서 세계로, 세계가 제주로

교류협력축제의 중심을 이루게 될 『탐라국제학술대회』에는 ‘바다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미국(괌, 하와이), 러시아 등 6개국 15명 내외의 학자들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제주(탐라)의 해양문화가 다른 지역의 해양문화와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그들 지역과 어떻게 인적, 물적 교류를 했는지를 규명하고 논의함으로써 제주(탐라)문화의 정체성과 세계성을 밝히는 것이 학술대회의 취지

이다. 『탐라국제아트캠프』는 해외 작가와 도내의 작가 30여 명이 축제가 열리기 이틀 전부터 축제장 내 캠프에 머물면서 탐라의 신화와 제주문화를 주제로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여는 한편 주어진 오브제를 활용해 설치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레지던시형 행사. 제주현무암, 조개껍질류, 고목류 등 제주의 자연 소재를 활용해 제주와 탐라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작품들은 축제 개막과 함께 축제장 내에 전시된다. 『탐라국제벼룩시장』은 축제 기간 내 주말을 활용해 진행되는 직거래장터. 추진위가 공지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내외국인을 개별 모집하여 ‘탐라상인’을 선정, 직접 만든 예술소품이나 각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보여주는 민속공예품, 생활소품 등을 좌판 형태로 직거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탐라국제음식문화관』은 제주 다문화가정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실제 해당 나라의 민속음식 뿐만 아니라 의상, 문화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5.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축제의 추억



도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또한 추진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제주도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탐라 골든벨을 울려라』. 제주의 자연, 역사, 언어, 신화, 문화 등에 대한 퀴즈 프로그램으로 도내 고등학생 1천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제주의 모든 것을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탐라 골든벨을 울려라』의 결선은 축제 기간 중 치러지며 우승자에게는 대학입학금이 장학금으로 제공된다. 『나는 신화다』는 ‘신화인물그리기’, ‘신화가면만들기’, ‘신화인물의상디자인’ 등 초중고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창의체험활동 수업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형상화한 상상 속 신화인물들을 그린 그림과 가면, 인형, 의상 등은 축제장에 상설 전시된다. 그 중 우수작품은 실제 가면과 탈, 인형으로 제작하여 축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6. 탐라문화제의 역사는 계속된다

문화예술축제의 기본은 제51회 탐라문화제. 기원축제, 민속예술축제, 무형문화재축제, 제주어축제, 예술문화축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중고생 풍물 및 민속예술시연이 이루어지는 학생민속예술축제의 날, 풍어기원제와 민속경기 등이 펼쳐지는 농업문화축제의 날이 마련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각 마을 단위 풍물 및 걸궁, 민속예술 경연도 이뤄진다. 중요무형문화재, 도 지정무형문화재, 올레 위의 제주학 문화재 답사, 역사문화기록전 등은 무형문화재축제를 통해 관람객을 만난다. 제주어축제는 제주어로 말하고, 노래하고, 시 낭송하고, 연극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운데 특별기획으로 4·3, 해녀, 농부, 어부 중산간마을 등 제주의 시대상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대회 형식의 ‘그땐 경 살앗주’를 마련한다.

조정국 총감독은 이처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예술, 참여체험, 참여전시, 교류협력, 학술 등 10개 분야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12탐라대전>의 추진전략으로 ▲자연과 환경친화축제로서의 생태성 ▲신화적 상상축제로서의 창조성 ▲메타축제로서의 포용성 ▲사람을 키우는 축제로서의 인본성 ▲제주인들이 먼저 즐기고 감동하는 축제성 등을 제시했다. 조 총감독은 “축제를 통해 이미 세계를 품에 안았던 고대 해상왕국 탐라정신의 부활에 대한 제주인의 바람(願)이 곧 세계를 향해 부는 바람(風)이라는 것을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2012탐라대전〉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기인 고두심씨는 “올해 처음 열리는 탐라대전이 세계가 찾는 제주의 대표 브랜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표 1〉 2012탐라대전 프로그램 구성표 (총 11개항목 42개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명
대표 프로그램 (3종)	주제공연 『탐라판타지』, 주제전시 『탐라DNA』, 주제퍼레이드 『바람마차퍼레이드』
공식행사 (3종)	제례행사, 개막식 『탐라여,부활하라』, 폐막식 『탐라여, 영원하라』
학술행사 (1종)	『탐라국제학술행사』
공연예술행사 (3종)	『탐라의푸른밤』콘서트, 어린이주제연극, 『탐라버스킹』콘서트
교류협력행사 (3종)	『탐라국제아트캠프』, 『탐라국제벼룩시장』, 『탐라국제음식문화관』
참여전시행사 (11종)	『탐라정원』, 『탐라명주100동인기』, 『나는신화다』 신화인물그리기&신화가만들기&전시(설치미술), 신화인형만들기&대형인형만들기&전시(설치미술), 신화의상디자인&의상제작, 『바람등 띄우기』
체험참여행사 (6종)	『탐라가면무도회』, 『탐라,천년의사랑』결혼식, 『탐라골든벨을울려라』, 『테우타기』체험, 『원담고기잡기』체험, 『탐라민속놀이터』
문화예술행사 (1종)	『제51회탐라문화제』
홍보, 마케팅행사 (3종)	게릴라퍼포먼스 『탐라는살아있다』, 로고송안무짜기이벤트, 로고송안무플래시몹, 방송제작 『우리동네,얼씨구나』
기타행사 (7종)	『탐라신화음식관』, 『탐라특산물거리』, 탐라우체국, 탐라기념품관, 기타부스행사(체험, 전시, 탐라향토음식문화거리)

다해 힘을 보태겠다”며, “탐라대전 만큼은 제주인의 기상과 세계화돼야 할 제주의 문화와 정신을 충실히 보여주는 내실 있는 축제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석 위원장도 “제주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축제, 민간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탐라대전은 3년 격년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탐라대전이 열리지 않는 평년에는 탐라문화제가 개최된다.

〈2012탐라대전〉에 관한 정보와 뉴스는 www.tamna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JDI**